

재무비율을 이용한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분석

Households' Financial Status Estimation with Financial Ratios

허경옥* · 한수진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Huh, Kyung Ok · Han, Su Ji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s and ratios to understand factors of household utility. Its main themes are as following: First, what kinds financial structures are found at each level of income? Second, how are they different by the level of income? Third, what factors contribute to appropriate financial ratios?

The themes are supported by the texts on financial ratio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nd proved by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the fifth annual edition. The households are exempted that do not support the household principle record in the principle and household economy record. Accordingly, this survey is from a financial structure analysis of 3,762 households. The analysis utilizes SPSS Window (Version 10.0) program.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the income level 4 and above, in which the increasing number indicates a higher level of income, are highly ranked on the income-expense level and the asset-debt rate. Also, level 4 has a strong financial structure, whereas level 1 does not. Apparently, the management of the household is complicated by debt redemption and a lower level of assets. Second, Ratio 1, Ratio 2, Ratio 4, and Ratio 5 are different by the level of income. Third, the level of income contributes to the appropriate financial ratio. The financial safety and prospective financial structure at each income level is an important variable. Households with a high income, in particular, have to balance their finances and capital, reducing liabilities and increasing the total assets. In other words, the family must hold assets to enhance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haracter and income level of the household.

This research is a useful resource for such a decision-making as to improve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stability. Also, it can be adopted to evaluate financial products for specific households and be used for economic and social welfare planning to predict how households influence the nationwide economy.

Key Words : Household's Financial Status, Household's Financial Ratios, Household's Financial Guideline

I. 서론

가계는 자원, 목표 및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원을 획득, 배분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이자 소비자단위이다. 가계는 급변하는 사회경제구조에서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이들의 욕구충족에 반응할 수 있는 자원제약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경제주체인 가계도 최근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는데 예를들면, 평균 가구원의 수가 적어지고 단독가계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원이 추구하는 욕구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가

계는 높아진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인적 자원부족 그리고 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가계는 이 같은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가족원의 효용극대화 창출을 위해 각 가계의 특성에 적절한 재무계획과 재무관리수행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특히, 재무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생활수준 유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즉 가계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 및 이행을 하게된다.

가계는 그 가계가 속해 있는 소득수준에 따라 재무관리 목표가 다르며, 추구하는 생활양식 및 가치가 다를 것이다. 고소득가계와 저소득가계의 재무구조는 다른 형태

* Corresponding author: Huh, Kyungok
Tel: 02) 920-7408, Fax: 02) 921-6804
E-mail: kohuh@sungshin.ac.kr

로 구성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서로 다른 재무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가계의 경제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구조도 변화를 하게 된다.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가계재무구조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되어온 가계재무 관련 연구들은 가계보유자산 및 특정 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가계전반의 재무구조 흐름과 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볼 때, 가계가 가지고 있는 소득수준별로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가계의 현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감에 따른 미래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및 가계 재무비율은 비교·분석하였으며,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선행되어온 재무 분석과는 달리 가계소득계층별로 구분하고 여러 재무비율을 조합하여 종합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동패널자료를 통해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객관성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재무구조 및 재무비율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가계를 총소득 4분위로 구분하여, 이들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각 가계별 가계재무구조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소득수준별로 가계의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적정 재무비율 준거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미래 가계재무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계는 각자 자신이 속한 가계의 재무상태를 비교·검증하여 재정적 안전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다음단계의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 계획 및 기혼여성의 취업시기, 은퇴시 안정적인 가계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부채 및 자산 수준 및 유형설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즉, 가계 내 재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계재무비율에 적합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 상위 25%가계에는 높은 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산증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하위 25%가계에는 낮은 소득수준으로 가계구성원들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시키고, 가계의 재무구조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시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가계의 재무구조 및 재무비율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은 물론 소득계층별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재무구조

가계의 재무구조는 일반적으로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은 가계 재무의 흐름을 보여주며, 가계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흑자규모나 저축을 통하여, 유량적 측면의 가계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성영애, 2003). 한편, 축적된 자산은 가계복지의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한편, 가계의 부채부담은 가계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계재무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심영, 1993; 최현자, 1996). 일반적으로 월평균가계소득 중 부채상환에 드는 금액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미국 전문 재무설계사들은 20~4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Hira, 1990, Waddell, 1999). 가계는 일정 기간동안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한다. 즉, 특정기간에 한 가계 내에 들어오는 소득과 충족시켜야 할 가족원의 욕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저축 혹은 차용을 이용해 가계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성영애, 1996). 결국, 가계가 자산을 보유하고 재무관리를 이행하는 이유는 소득감소나 기대 이상의 소비지출이 있을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재무구조 분석은 소득, 지출을 통해 가계의 유량적(flow)측면과 자산 및 부채를 통해 저장적(stock)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가계재무비율

가계소득, 소비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을 통한 가계재무상태의 평가는 간단하게 가계경제의 기본적인 측면을 파악하게 해주나, 가계재무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위험, 부채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가계의 안정성, 가계 자산의 균형성이나 성장성 등과 같은 가계경제의 복합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의 재무변수를 조합한 가계재무비율이다(최현자 외 3명, 2003).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무비율은 원래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적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비율로 재무제표 상에 표기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김철중, 2000). 이를

가계의 재무상태파악을 위해 적용된 것으로서, 단순히 소득과 지출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정항목을 사용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재무비율은 가계가 달성해야 할 재무적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가계가 실제로 어떠한 재무행동을 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재무비율은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제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가계의 재무유형의 분석 및 재무 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저축과 투자 유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DeVaney, 1993).

많은 연구들이 소득, 지출, 자산 등을 조합한 가계재무비율을 통하여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고, 가계재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Griffith, 1985; Langrehr & Langrehr, 1989; Prather, 1990; Garman & Fogue, 1994; Lytton, Garman & Porter, 1991; Crystal & Shea, 1990; DeVaney, 1993; 양정선, 1997; 최윤지·최현자, 1998; 채은석·성영애,

2000; 안승철·김년희, 2001; 최현자, 2001; 성영애, 2003; 최현자 외 3명, 2003). 가계재무비율은 크게 지출과 소득간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소득·소비지출 관련비율과 긴급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가계의 능력을 알려주는 유동성비율, 미래의 재정상태의 향상정도를 평가하고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부채부담비율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재무비율비표는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소득,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이용하여 연구자마다 혹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소 다르게 측정되어 왔다. 즉, 개인 및 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 방법이 모든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Crystal & Shea, 1990).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을 적합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가계의 재무상태 및 구조의 분석을 평가하기 위한 재무비율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재무비율을 통해 가계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단기적인 재무설계능력을 평가하고, 가

<표 1> 가계재무비율유형 및 준거기준

| 구분 | Lytton, Garman & Porter(1991) | | DeVaney(1993) | |
|---------------|-------------------------------|-----------------------|------------------|----------|
| | 재무비율유형 | 준거기준 | 재무비율유형 | 준거기준 |
| 소득·지출비율 | 월평균순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 1.0미만 | 연간주거비/총소득 | 0.28미하 |
| | 연간총저축/연간가처분소득 | 세전소득10% | | |
| | 월평균총주거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 0.30~0.40 | | |
| 유동성비율 | 유동자산/월평균순소비지출 | 2~6개월분 | 유동자산/가처분소득 | 0.25이상 |
| 자산·부채비율 | 월평균소비자부채상환액/가처분소득 | 0.10이하 | 연간부채지불액/가처분소득 | 0.40이하 |
| | 총연간부채상환액/총연간소득 | 0.30~0.35 | 총자산/총부채 | 1.0이상 |
| | 총주거자산/총주거관련부채 | - | 연간소비자부채지불액/가처분소득 | 0.15이하 |
| | 투자자산/순자산 | 0.20이상 | 투자자산/순자산 | 0.25이상 |
| 양정선(1997) | | 최윤지·최현자(1998) | | |
| 소득·지출비율 | 연간총지출/연간총소득 | 1.0미만 |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 1.0미만 |
| | 주관적 최저생계비/월평균가계소득 | 1.0미만 |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 0.1초과 |
| | 주관적 최저생계비/월지출 | 1.0미만 | | |
| 유동성비율 | 금융자산/월지출액 | 3.0이상 | 유동자산/월지출액 | 3.0초과 |
| | 금융자산/순자산 | 0.25이상 |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 0.25초과 |
| 자산·부채비율 | | | 유동자산/순자산 | 0.25초과 |
| | 금융자산/총부채 | 0.1이상 | 유동자산/총부채 | 0.1초과 |
| | 실물자산/총부채 | 1.0이상 | 총부채/순자산 | 1.0미만 |
| | 총자산/총부채 | 1.0이상 | 실물자산/총부채 | 1.0초과 |
| | 총부채/순자산 | 1.0이상 | 투자자산/순자산 | 0.2초과 |
| | 총부채/연간총소득 | - | | |
| 안승철·김년희(2001) | |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 | |
| 소득·지출비율 |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 1.0미만 |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 0.9미만 |
| | 월평균총주거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 0.30~0.40 |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 0~0.2 |
| |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 0.1이상 |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 0.1이상 |
| 유동성비율 | 유동자산/가처분소득 | 0.25이상 |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 1.0이상 |
| | 유동자산/월평균소비지출 | 2~6개월 |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 1.0이상 |
| | 유동자산/순자산 | 0.25이상 | 금융자산/총자산 | 0.1이상 |
| 자산·부채비율 | 유동자산/총부채 | 0.1이상 |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 0.25이하 |
| | 총부채/순자산 | 1.0미만 | 총부채/금융자산 | 10이하 |
| | 실물자산/총부채 | 1.0이상 | 총부채/총자산 | 0.8이하 |
| | 투자자산/순자산 | 0.2이상 | 투자자산/총자산 | 0.05~0.1 |
| | | | 실물자산/총자산 | 0.9이하 |

계재무상태의 향상정도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무설계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김연정,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가계재무비율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으며, 본 연구목적에 맞는 재무비율을 선정·조정하여 각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고찰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이라는 기본 연구목적을 가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성영애(1996)는 도시근로자 가계 재무구조분석에서 1982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가계의 부채부담정도를 추정하여 부채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82년에서 1992년까지 전도시가계는 월평균 가계소득의 10-13%내외를 부채상환에 쓰고 있었으며, 도시가계의 30-49%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채보유가계 중 월평균 가계소득의 25-39%정도를 부채상환에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혜련·최현자(1999)는 1996년 한국가구 패널조사를 이용해 주거보유형태에 따라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자산의 규모 및 소비지출패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의 규모 그리고 소비지출패턴은 주거보유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가계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은석·성영애(2000)는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과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여 객관적 부채부담이 주관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재무비율과 관련한 준거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월평균 상환액 20만원,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 0.2, 부채잔액 1,500만원 이상을 기점으로 주관적인 부채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부채지표의 조정을 통한 심리적 부채부담의 감소와 같은 부채관리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최현자(2001)는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을 파악하여 가계의 과도한 신용이용을 방지하고, 가계재무상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채부담수준을 파악하여 가계가 추가적인 부채사용을 자제해야하는 부채상환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는 조사대상가계의 83%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가계 7%는 부채부담이 40%를 넘어섰고, 이들의 평균 부채부담이 62%임을 밝혔다. 또한 가계의 부채상환선은 25%로 이 수준을 초과하여 부채부담을 하게 되면 가계의 저축이 불가능해지며, 40%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지

출 및 소비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안승철·김년희(2001)는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재무비율로 측정하여 각 준거기준을 충족하는 가계와 미달되는 가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있는 변수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동자산은 경제적 만족감, 월평균 가계소득 및 가처분소득 변인이, 실물자산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계 및 소득원수가, 순자산인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계, 소득원수 및 월평균 저축이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유동성의 경우 학력 및 전세가계와 부적인 관계를, 부채비율은 소비지출과 정적인 관계를, 자산축적은 전세가계, 자녀교육기 및 주관적 경제전망, 저축과는 부적인 관계에서 각각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미경(2001)은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가계를 근로소득자 가계와 자영업자 가계로 구분하여 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대비 소비비율은 근로소득자가 더 높으며, 유동성비율은 단기 및 장기 유동성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채부담비율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준거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본축적비율에서도 근로소득자의 준거기준 만족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재정상태가 더 양호함을 보였다.

성영애(2003)는 가구주 직업에 따른 재무구조와 직업에 따른 연령별 재무구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구주의 직업은 봉급생활자, 자영업 및 자유업종사자, 농림수산업자 및 비정규직 종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입지출상태에 있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유사하고 수입지출 상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부채상태는 비정규직종사자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고 농림수산업자의 부채상환능력이 가장 낮으며, 비정규직 종사자가 유사한 유동성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자 외 4명(2003)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를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 안정성지표에서는 소득의 90%이상을 소비지출에 할당하면 경제적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가계금융자산은 최소 현재생활수준을 1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유하여야 하며, 월납입 보험료는 월평균소득의 20%가 적정수준이며, 월평균 부채상환액이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함을 지적하였다. 성장성지표로는 소득의 50%이상을 저축해야하며, 실물자산은 총

자산의 90%를 넘지 않아야하며, 유동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어 후속연구로 성영애 외 4명(2004)은 가계재무의 안정성과 성장성 평가지표의 충족여부에 따라 가계를 분류하여 각 유형의 가계가 갖는 가계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가계가 가구주의 연령이 낮은 가계가 아니라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안정성과 성장성의 부족이 자산축적의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자산을 획득하고 운영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다른나라 연구를 살펴보면 Fan, Chang과 Hanna(1992)는 소득변화에 따른 부채비율을 추정하여 가계재무구조 분석을 하였다. 음의 자산형태로 나타나는 부채의 적절한 사용은 재무설계 또는 재무상담시 중요한 지표가 되며, 향후 가계재무관리상에서의 역할이 보다 중시될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계재무구조분석을 위해서는 부채관련 비율 및 지표의 분석은 그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Fan, Chang과 Hanna(1997)는 가계가 예상 밖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비상금을 위한 최선의 저축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 적절한 유동자산은 2-6개월의 생활비이며, 가계가 보유해야하는 유동자산은 가족의 상태와 직업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계재무구조분석연구를 종합해 볼 때, 소득을 기준으로 가계를 구분하여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소득계층구분 연구는 소비지출구조 분석이 대부분이다. 가계소득계층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배미경(1998)은 고소득과 저소득층을 구분하여 이들 두 집단간의 소비지출을 비교분석하고, 소득수준별로 8개 집단에 따른 지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고소득집단과 저소득집단의 소비결정함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득재분배효과와 관련된 경제정책을 마련할 때 저소득층의 가계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연령이나 기타 인구사회학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복지프로그램의 적용성 근거를 마련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소연경(2000)은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에서 가계소득을 근거로 하위 30%를 저소득층, 상위 20%를 고소득층, 나머지를 중간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소득계층별로 IMF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근로자가구의 IMF 전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IMF 전보다 15%, 중간소득층은 11.6%, 고소득층은 9.5% 감소했으며, 소득계층마다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한 구성비의 변화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는 사회의 경기변동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변동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성림(2002)은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분포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였다. 10분위로 계층을 구분한 것은 비교적 세밀한 지출 분포를 알 수 있고, 대다수의 소득 분배연구에서 10분위 구분을 적용하고 있으며, 10분위로 구분할 경우 극상층과 극하층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중·하의 세 계층으로 보다 용이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승신(2003)은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접근을 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의 가계재무구조와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예측되어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연간 총소득에 비해 상환해야하는 부채의 규모가 매우 높아 가계의 효율적인 지출 및 소비행동이 어려우며 미래 예기치 못한 위협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중소득층은 안정적인 부채상환능력과 자산증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연간소득에 비해 부채부담이 약간 높았고, 고소득층은 연간총소득에 비해 부채부담이 약간 높으나 부채에 비해 총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으며 가계의 예기치 못하는 위협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확보가 이루어진 재무상태라고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계층구분에 의한 재무구조분석연구는 대부분 소비지출 관련한 비교분석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구조 뿐만 아니라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산·부채구조 및 여러 재무비율을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재무구조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가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를 총소득 4분위로 구분하여, 이들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가계의 총소득 4분위별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비교·분석

한다. 셋째, 적정 재무비율 준거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향요인을 조사한다.

2.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소득계층에 따라 가계재무비율을 파악하고 소득계층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2년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이하 KLIPS)' 5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으로 가계를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가계를 제외한 3,762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하였다.²⁾ 한편, 가계의 실물자산보유액을 산출하기 위해 1-4차년도 가계자료를 이용하였다.

3. 측정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및 측정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재무변수 그리고 기타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선행연구(Lytton, Garman & Porter, 1991; DeVaney, 1993; 양정선, 1997; 최윤지·최현자, 1998; 안승철·김년희, 2001;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 2003)에서 제시된 재무비율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을 소득·지출비율, 유동성비율, 자산·부채비율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그 하위영역으로 총 7가지 비율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각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최근 우리나라 가계특성에 맞는 준거기준을 제시한 최현자 외 3명(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준거기준을 선정하였다. 재무비율의 자세한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소득·지출비율에서 가계의 현재 소비성향을 측정하고자 월평균 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비지출액(Ratio1)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만족시키는 준거기준은 0.9미만으로 정의하였다. 가계의 소득 중 어느 정도를 저축하는지 측정함으로써 저축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로, 연간 총소득에 대한 연간 총저축액(Ratio2)을 측정하였으며, 준거기준은 0.1이상이다.

단기유동성 비율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Ratio3)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준거기준은 1.0이상이 된다. 장기유동성은 총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Ratio4) 또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계의 장기유동성을 측정하는 비율로 준거기준은 0.1이상이 된다.

자산·부채비율은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재정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총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Ratio5)로 그 준거 기준은 0.1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매월 지출해야하는 부채상환액이 가계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월평균 소득에 대한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율(Ratio6)을 측정하였으며, 준거기준은 0.25이하로 낮

<표 2> 가계재무비율 정의 및 측정방법

| 재무비율유형 | 재무비율개념 | 준거기준 |
|---------------------------|---|--------|
| 소득·지출비율 | | |
| Ratio1 : 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 |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비율로 소비성향을 측정 | 0.9미만 |
| Ratio2 : 총저축액/총소득 | 가계의 저축률을 나타내는 지표 | 0.1이상 |
| 유동성비율 | | |
| Ratio3 :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 가계가 직면하는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가계의 능력을 알려주는 단기유동성비율 측정 | 1.0이상 |
| Ratio4 : 금융자산/총자산 | 가계가 직면하는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가계의 능력을 알려주는 장기유동성비율 측정 | 0.1이상 |
| 자산·부채비율 | | |
| Ratio5 : 금융자산/총부채 |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 0.1이상 |
| Ratio6 :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 소득 중 부채를 위해 지불되는 비율 | 0.25이하 |
| Ratio7 : 투자자산/순자산 | 순자산 중 투자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은퇴시 비율이 높아져야 함 | 0.2이상 |

2) 연간 총 소득이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4,144,944원(345,412원 ×12개월) 미만 가계는 제외시켰다.

을수록 가계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자본축적을 살펴볼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산비율(Ratio7)을 측정하였으며, 준거기준은 0.2이상으로 높을수록 자본축적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그 값을 추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SPSS Window(Versio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 및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고 소득계층별 재무구조 및 재무비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사후분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계의 특성에 따른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위해

IV. 연구결과

1.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가계는 총 3,762 가계가며, 소득으로 구분한 소득1분위 가계는 940명, 소득2분위 가계는 950명, 소득3분위 가계는 967명, 소득4분위 가계는 905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평균 46세이며, 소득1분위 가계는 53세, 소득2분위 가계와 소득3분위 가

<표 3>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분석 빈도(%)

| 변수 | 전체 (n=3762)* | | 소득1분위 (n=940)* | | 소득2분위 (n=950)* | | 소득3분위 (n=967)* | | 소득4분위 (n=905)*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가구주연령 | 47.55 | (12.67) | 53.43 | (14.89) | 45.41 | (12.39) | 44.76 | (10.61) | 46.67 | (10.30) |
| 자녀수 | 1.47 | (.96) | 1.92 | (.97) | 1.44 | (.93) | 1.66 | (.87) | 1.85 | (.81) |
| 가구원수 | 3.50 | (1.26) | 2.74 | (1.27) | 3.44 | (1.22) | 3.78 | (1.09) | 4.06 | (1.03) |
| 가계경제 주관적평가 | 3.93 | (1.10) | 4.31 | (1.01) | 3.97 | (1.07) | 3.81 | (1.08) | 3.63 | (1.12) |
| 우리나라 경제 주관적평가 | 3.54 | (1.19) | 4.31 | (1.01) | 3.58 | (1.16) | 3.50 | (1.23) | 3.46 | (1.24) |
| 구분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가구주교육수준 | | | | | | | | | | |
| 고졸이하 | 2723 | (72.4) | 820 | (87.2) | 753 | (79.3) | 664 | (68.7) | 486 | (53.7) |
| 대졸 | 1039 | (27.6) | 120 | (12.8) | 197 | (20.7) | 303 | (31.3) | 419 | (46.3) |
| 가구주 취업여부 | | | | | | | | | | |
| 미취업 | 718 | (19.1) | 348 | (37.0) | 158 | (16.6) | 114 | (11.8) | 98 | (10.8) |
| 취업 | 3044 | (80.9) | 592 | (63.0) | 792 | (83.4) | 853 | (88.2) | 807 | (89.2) |
| 가구주 직종 | | | | | | | | | | |
| 전문직 | 178 | (5.9) | 16 | (2.7) | 21 | (2.7) | 44 | (5.2) | 97 | (12.1) |
| 비전문직 | 2834 | (94.1) | 572 | (97.3) | 762 | (97.3) | 796 | (94.8) | 704 | (87.9) |
| 배우자 유무 | | | | | | | | | | |
| 무 | 746 | (19.8) | 364 | (38.7) | 195 | (20.5) | 119 | (12.3) | 68 | (7.5) |
| 유 | 3016 | (80.2) | 576 | (61.3) | 755 | (79.5) | 848 | (87.7) | 837 | (92.5) |
| 배우자 취업여부 | | | | | | | | | | |
| 미취업 | 1569 | (52.0) | 329 | (57.1) | 431 | (57.1) | 428 | (50.5) | 381 | (45.5) |
| 취업 | 1447 | (48.0) | 247 | (42.9) | 324 | (42.9) | 420 | (49.5) | 456 | (54.5) |
| 거주지역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897 | (23.8) | 202 | (21.5) | 186 | (19.6) | 226 | (23.4) | 283 | (31.3) |
| 기타 | 2865 | (76.2) | 738 | (78.5) | 764 | (80.4) | 741 | (76.6) | 622 | (68.7) |

* 결측치로 인해 빈도수가 다를 수 있음.

계는 각각 45세 그리고 소득4분위 가계는 47세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전체 가계의 경우 1.45명이며,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득1분위 가계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4분위 가계 1.85명, 소득3분위 가계 1.66명, 그리고 소득2분위 가계 1.44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계의 총 가구원수는 평균 3.5명이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4분위 가계가 3.63으로 가장 낮았으며, 소득1분위 가계가 4.3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계의 경제적 여건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5점 리커트 척도)는 전체 가계의 경우 3.93,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 가계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4분위 가계가 3.6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는 전체의 경우 3.54, 소득1분위 가계는 4.31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4분위 가계는 3.4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경제평가와 우리나라 경제의 주관적평가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이 높은 가계 경제의 주관적평가가 소득이 낮은 가계보다 낮은 것을 볼 때, 고소득가계의 경제적 욕구수준이 더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72%, 대졸이상이 28%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각 분위별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대졸 학력자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의 취업여부는 전체 가계 미취업비율이 19%이었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 가계의 미취업 비율은 37%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4분위 가계는 1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구주의 직종은 전체 가계 중 전문직 비율이 6%이며, 소득4분위 가계의 전문직비율은 12%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소득2분위 가계와 소득1분위 가계는 가구주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계 중 배우자가 있는 가계는 80%이며, 이들 배우자중 취업자는 48%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4분위 가계는 93%가 배우자가 있으며, 이중 취업자는 55%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3분위 가계의 88% 배우자가 있으며, 50%가 취업자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2분위 가계는 21%가 배우자가 없는 가계이며, 배우자가 있는 가계의 배우자 취업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 가계의 61%가 배우자가 있으며, 이들 중 취업자는 43%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가계의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24%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 각각 22%, 20%, 23%, 그리고 31%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차이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소득·지출 관

련 변수와 자산·부채 관련 변수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가계의 재무 관련 특성 및 소득계층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4-1>, <표 4-2>과 같다. 우선, <표 4-1>에서는 전체 조사대상가계의 차이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았다. 가계재무구조분석을 위한 재무 관련 특성 중 월평균 부채상환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무변수들이 소득계층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계의 총 소득은 연간 평균 2,844만원이며, 소득1분위 가계의 총소득 평균은 938만원, 소득2분위 가계는 1,847만원, 소득3분위 가계는 2,826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 가계는 5,888만원으로 조사되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조사대상가계 평균 144만원이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 가계 77만원, 소득2분위 가계 116만원, 소득3분위 가계 156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 가계가 229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의 월저축액은 45만원이며,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1분위 가계가 10만원, 소득2분위 가계, 28만원, 소득3분위 가계, 49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 가계가 96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월저축액도 높음을 알 수 있고 소득계층에 따라 이들 가계 간 차이가 유의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과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양(+)의 값을 가지는 흑자가계는 조사대상가계 중 86%에 해당하며 소득4분위 가계는 99%가 흑자가계이며, 소득1분위 가계는 66%가 흑자가계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계의 평균 실물자산보유액은 본 연구에 분석된 가계를 14차년도 자료에서 추적한 결과 12,108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 가계는 8,037만원, 소득2분위 가계는 9,173만원, 소득3분위 가계는 12,385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 가계는 19,116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계층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융자산보유액은 전체 가계의 경우 1,684만원이며, 소득1분위 가계는 604만원, 소득2분위 가계는 1,016만원, 소득3분위 가계는 각각 1,532만원, 3,669만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가계의 부채 평균은 2,206만원이며, 소득계층별 총 부채보유액 평균은 소득4분위 가계가 3,81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2분위 가계가 1,414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 가계 총 부채보유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 월상환액은 평균 2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 가계 7만원, 소득2분위 가계 40만원, 소득3분위 가계 15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 가계 2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 보유액은

<표 4-1>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차이분석(전체가계)

(단위 : 명, 만원)

| | 전체 (n=3762)* | | 소득1분위 (n=940)* | | 소득2분위 (n=950)* | | 소득3분위 (n=967)* | | 소득4분위 (n=905)* | | F 값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총소득(년) | 2844 | 3047 | 938 | 287 | 1848 | 233 | 2826 | 349 | 5888 | 4924 | 720.182*** |
| | | | a | | b | | c | | d | | |
| 근로소득(년) | 2399 | 1898 | 739 | 445 | 1693 | 455 | 2641 | 565 | 4606 | 2427 | 1568.560** |
| | | | a | | b | | c | | d | | |
| 금융소득(년) | 43 | 295 | 16 | 103 | 19 | 115 | 26 | 155 | 115 | 553 | 24.320*** |
| | | | a | | a | | a | | b | | |
| 부동산소득(년) | 196 | 1906 | 32 | 137 | 37 | 201 | 54 | 281 | 687 | 3828 | 26.860*** |
| | | | a | | a | | a | | b | | |
| 이전소득(년) | 91 | 1220 | 108 | 230 | 44 | 177 | 39 | 166 | 178 | 2461 | 2.667* |
| | | | a | | a | | a | | b | | |
| 기타소득(년) | 61 | 596 | 8 | 79 | 12 | 92 | 31 | 185 | 201 | 1183 | 22.363*** |
| | | | a | | a | | a | | b | | |
| 소비지출액(월) | 144 | 91 | 77 | 40 | 116 | 40 | 156 | 52 | 229 | 125 | 737.934*** |
| | | | a | | b | | c | | d | | |
| 저축액(월) | 45 | 62 | 10 | 18 | 28 | 29 | 49 | 47 | 96 | 91 | 446.415*** |
| | | | a | | b | | c | | d | | |
| 흑자가계비율 ¹⁾ (%) | 86 | .34 | 66 | .47 | 86 | .34 | 95 | .21 | 99 | .09 | 204.619*** |
| | | | a | | b | | c | | d | | |
| 실물자산보유액 | 12108 | 16309 | 8037 | 13162 | 9173 | 10065 | 12385 | 16449 | 19116 | 21337 | 91.434*** |
| | | | a | | a | | b | | c | | |
| 금융자산보유액 | 1684 | 4219 | 604 | 1838 | 1016 | 2248 | 1532 | 2468 | 3669 | 7286 | 103.444*** |
| | | | a | | b | | c | | d | | |
| 총부채보유액 | 2206 | 7097 | 1666 | 10799 | 1414 | 3175 | 2004 | 4820 | 3812 | 7029 | 21.811*** |
| | | | a | | a | | a | | b | | |
| 부채상환액(월) | 23 | 414 | 7 | 18 | 40 | 817 | 15 | 53 | 29 | 87 | 1.170 |
| | | | | | | | | | | | |
| 순자산보유액 ²⁾ | 11564 | 17593 | 6908 | 16628 | 8803 | 10309 | 11869 | 16057 | 18933 | 22988 | 87.290*** |
| | | | a | | b | | c | | d | | |
| 투자자산보유액 ³⁾ | 431 | 1740 | 117 | 763 | 238 | 1017 | 403 | 1308 | 991 | 2936 | 47.051*** |
| | | | a | | a | | b | | c | | |

1) 흑자가계비율 : 월평균가계소득-월평균 소비지출액 > 0

2) 순자산 보유액 : 총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총부채

3) 투자자산 보유액 : 주식+저축보험+계

* p < .05, **p < .01, ***p < .001

* 결측치로 인해 빈도수가 다를 수 있음.

평균은 11,564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 가계의 순자산 보유액은 보유가계 평균이 6,90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2분위 가계가 8,803만원, 소득3분위 가계가 11,869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 가계가 18,933만원이었으며, 이들 소득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며, 문숙재·정순희·여운경(2002)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고소득 가계가 그렇지 않

은 가계보다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투자자산보유가계의 평균은 431만원이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4분위 가계가 가장 높은 991만원의 평균을 나타냈고, 소득1분위 가계가 117만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소득계층 간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4-2>에서 각 재무변수의 보유가계만을 대상

<표 4-2>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차이분석 (보유가계)

(단위 : 명, 만원)

| | 전체 | | | 소득1분위 | | 소득2분위 | | 소득3분위 | | 소득4분위 | | F 값 |
|--------------------------|-------------|-------|------------|-------|------------|-------|------------|-------|------------|-------|------------|-----|
| | n (%) | M | | n (%) | M | n (%) | M | n (%) | M | n (%) | M | |
| 총소득(년) | 3762 (100) | 2844 | 940 (100) | 938 | 950 (100) | 1848 | 967 (100) | 2826 | 905 (100) | 5888 | 720.182*** | |
| | | | a | | b | | c | | d | | | |
| 근로소득(년) | 3533 (93.9) | 2554 | 776 (82.6) | 895 | 916 (96.4) | 1755 | 952 (98.4) | 2682 | 889 (98.2) | 4689 | 1491.890** | |
| | | | a | | b | | c | | d | | | |
| 금융소득(년) | 334 (8.9) | 486 | 52 (5.5) | 297 | 62 (6.5) | 287 | 84 (8.7) | 294 | 136 (15.0) | 767 | 8.386*** | |
| | | | a | | a | | a | | b | | | |
| 부동산소득(년) | 361 (9.6) | 2045 | 77 (8.2) | 388 | 57 (6.0) | 609 | 67 (6.9) | 778 | 160 (17.7) | 3884 | 10.269*** | |
| | | | a | | a | | a | | b | | | |
| 이전소득(년) | 1068 (28.4) | 320 | 401 (42.7) | 254 | 235 (24.7) | 176 | 222 (47.8) | 168 | 210 (23.2) | 766 | 3.476* | |
| | | | a | | a | | a | | b | | | |
| 기타소득(년) | 182 (4.8) | 1271 | 18 (1.9) | 421 | 30 (3.2) | 391 | 47 (4.9) | 643 | 87 (9.6) | 2089 | 7.106*** | |
| | | | a | | a | | a | | b | | | |
| 소비지출액(월) | 3756 (99.8) | 144 | 939 (99.9) | 77 | 949 (99.9) | 116 | 965 (99.8) | 156 | 903 (99.8) | 229 | 746.437*** | |
| | | | a | | b | | c | | d | | | |
| 저축액(월) | 2977 (79.1) | 57 | 464 (49.4) | 20 | 786 (82.7) | 33 | 874 (90.4) | 54 | 853 (94.3) | 102 | 285.087*** | |
| | | | a | | b | | c | | d | | | |
| 흑자가계비율 ¹⁾ (%) | 3756 (99.8) | 86 | 939 (99.9) | 66 | 949 (99.9) | 86 | 965 (99.8) | 95 | 903 (99.8) | 99 | 204.619*** | |
| | | | a | | b | | c | | d | | | |
| 실물자산보유액 | 3563 (94.7) | 12737 | 866 (92.1) | 8696 | 896 (94.3) | 9675 | 921 (95.2) | 12963 | 880 (97.2) | 19594 | 83.919*** | |
| | | | a | | a | | b | | c | | | |
| 금융자산보유액 | 2577 (68.5) | 2458 | 462 (49.1) | 1229 | 633 (66.6) | 1525 | 729 (75.4) | 2032 | 753 (83.2) | 4409 | 63.031*** | |
| | | | a | | ab | | b | | c | | | |
| 총부채보유액 | 1952 (51.9) | 4250 | 425 (45.2) | 3685 | 468 (49.3) | 2871 | 516 (53.4) | 3755 | 543 (60.0) | 6352 | 13.656*** | |
| | | | a | | a | | a | | b | | | |
| 부채상환액(월) | 1470 (39.1) | 58 | 287 (30.5) | 22 | 354 (37.3) | 106 | 406 (42.0) | 36 | 423 (83.2) | 61 | 1.069 | |
| | | | | | | | | | | | | |
| 순자산보유액 | 3662 (97.3) | 11715 | 889 (94.5) | 7156 | 933 (98.2) | 8860 | 950 (98.2) | 11944 | 890 (98.3) | 19019 | 84.042*** | |
| | | | a | | a | | a | | b | | | |
| 투자자산보유액 | 1013 (26.9) | 1602 | 96 (10.2) | 1149 | 218 (22.9) | 1039 | 317 (32.8) | 1228 | 382 (42.2) | 2347 | 12.701*** | |
| | | | a | | b | | b | | c | | | |

1) 흑자가계비율 : 월평균가계소득-월평균 소비지출액 > 0

2) 순자산 보유액 : 총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총부채

3) 투자자산 보유액 : 주식+저축보험+계

* p < .05, **p < .01, ***p < .001

으로 소득계층별 재무구조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가계대 상 분석과 동일하게 월 부채상환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무변수들이 소득계층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소득계층별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금융자산보유액, 순자산보유액 그리고 투자자산보유액 등 자산관련 변수에서 사후검증의 차이가 나타났다.

3. 가계재무비율 차이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을 소득·지출비율, 유동성비율, 자산·부채비율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하위영역으로 총 7가지 비율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비율 차이 분석 결과는 <표 5>과 같다.

연구결과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과 Ratio2(총저축액/총소득), Ratio4(금융자산/총자산)와 Ratio5

<표 5>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비율 차이분석

(단위 : 명, 만원)

| | | 전체 | 소득1분위 | 소득2분위 | 소득3분위 | 소득4분위 | F값 |
|-------------------------------|------|--------|--------|--------|--------|--------|------------|
| Ratio 1 (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 | n | 3757 | 939 | 950 | 965 | 903 | 353.265*** |
| | M | .750 | 1.028 | .759 | .668 | .534 | |
| | S.D. | .381 | .521 | .251 | .217 | .267 | |
| | D | | d | c | b | a | |
| Ratio 2 (총저축액/총소득) | n | 3758 | 939 | 949 | 966 | 904 | 45.374*** |
| | M | .182 | .121 | .182 | .208 | .220 | |
| | S.D. | .204 | .230 | .183 | .199 | .185 | |
| | D | | a | b | c | c | |
| Ratio 3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 n | 3744 | 930 | 949 | 964 | 901 | 2.519 |
| | M | 7.317 | 8.284 | 6.590 | 6.565 | 7.889 | |
| | S.D. | 17.114 | 24.970 | 14.526 | 11.060 | 14.796 | |
| | D | | b | a | a | ab | |
| Ratio 4 (금융자산/총자산) | n | 3625 | 903 | 908 | 931 | 883 | 58.317*** |
| | M | .1235 | .073 | .112 | .132 | .177 | |
| | S.D. | .1740 | .141 | .168 | .171 | .196 | |
| | D | | a | b | c | d | |
| Ratio 5 (금융자산/총부채) | n | 3744 | 930 | 949 | 964 | 901 | 33.843*** |
| | M | 967 | 414 | 677 | 969 | 1839 | |
| | S.D. | 3258 | 1609 | 2011 | 2289 | 5517 | |
| | D | | a | a | b | c | |
| Ratio 6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 n | 3762 | 940 | 950 | 967 | 905 | 1.175 |
| | M | .111 | .090 | .228 | .067 | .059 | |
| | S.D. | 2.246 | .239 | 4.454 | .254 | .118 | |
| | D | | | | | | |
| Ratio 7 (투자자산/순자산) | n | 3753 | 938 | 948 | 965 | 902 | 1.281 |
| | M | .081 | .012 | .034 | .221 | .051 | |
| | S.D. | 2.625 | .193 | .293 | 5.160 | .247 | |
| | D | | | | | | |

* p < .05, **p < .01, ***p < .001

(금융자산/총부채)가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Ratio1은 전체 가계의 평균이 .75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총 소득이 가장 높은 가계인 소득4분위 가계가 .53로 가장 낮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 가계가 가장 높은 1.03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각 소득계층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성향의 차이는 소비지출액 증가보다 소득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낮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저축률 Ratio2는 조사대상가계 전체 평균은 .18이며, 소득계층별로 총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낮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4분위 가계 .22, 소득3분위 가계 .21로 평균 저축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소득1분위 가계의 저축률은 .12로 기타 다른 가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 가계는 소득 중 저

축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 유동성비율 Ratio4는 소득4분위 가계가 0.17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소득1분위 가계는 0.12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소득계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장기유동성비율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유자산의 형태가 실물자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며,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의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소득4분위 가계는 총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 가계의 장기적인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Ratio5는 전체 평균은 967로 나타났다. 각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 가계가 414로 가장 낮으며, 소득4분위 가계가 1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가계재무비율 영향요인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각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중심으로 준거기준을 충족시킨 가계와 준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계로 구분하였다. 즉, 준거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가계에 속할 확률을 1로 구분하여 이 집단을 가계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 정의하였다. 한편, 부채관련 재무비율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는 재무비율준거기준에 충족한 가계에 포함시켰다. 재무비율별로 각 준거기준에 충족한 가계의 비율은 다음의 <표 6>와 같다.

조사대상 전체가계를 살펴볼 때, 소득 중 부채를 위해 지불되는 비율인 Ratio6(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을 충족시킨 가계는 93%로 가장 높았으며, 순자산 중 투자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은 5%의 낮은 비율로 준거기준을 충족시켰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4분위 가계는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충족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 가계는 Ratio6(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에서 준거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계가 많았으며, 마찬가지로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재무구조가계에 속하기 위한 영향요인 알아보기 위해 Logi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변수와 재무 관련 변수 그리고 기타변수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 영향요인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우선,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의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총 사례의 92.2%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Ratio1의 준거기준 충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연령과 자녀수, 그리고 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1살 많을수록 Ratio1 준거기준을 충족

할 확률이 0.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계는 가계의 소비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수가 한명 많을수록 Ratio1의 준거기준을 충족시킬 확률이 10.9%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녀수의 증가가 소비성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총소득으로 구분한 소득계층에 따라 Ratio1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4분위 가계는 소득1분위 가계에 비해 73% Ratio1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높았으며, 소득2분위 가계는 23%, 소득3분위 가계는 46%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Ratio2(총저축액/총소득)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총 사례의 66.6%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Ratio2의 준거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순자산 보유여부, 혹자가계여부 그리고 가계경제 주관적평가로 나타났다.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저축률인 Ratio2의 준거기준에 충족할 확률이 0.7%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 연령 증가는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저축액의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가구주가 대출확력을 가질수록 5.2%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높았으며, 준거집단인 소득1분위 가계에 비해 소득3분위 가계는 13.6%, 소득4분위 가계는 16.7%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가 순자산을 보유하거나 혹자가계일 경우 저축률 준거기준을 충족시킬 확률이 14.7%, 7.5%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Ratio3(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의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총 사례의 67.7%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Ratio3의 준거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 가구주 교육수준, 소득계층, 순자산 보유여부, 혹자가계여부 그리고 가계경제 주관적평가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1명 많을수록 Ratio3의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0.5%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구주교육수준이 대졸

<표 6>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여부

| | 전체 | | 소득1분위 | | 소득2분위 | | 소득3분위 | | 소득4분위 | |
|---------|------|---------|-------|---------|-------|---------|-------|---------|-------|---------|
| | n | 충족비율(%) | n | 충족비율(%) | n | 충족비율(%) | n | 충족비율(%) | n | 충족비율(%) |
| Ratio 1 | 3757 | 74 | 939 | 41 | 950 | 73 | 965 | 86 | 903 | 96 |
| Ratio 2 | 3758 | 57 | 939 | 36 | 949 | 57 | 966 | 66 | 904 | 68 |
| Ratio 3 | 3744 | 61 | 930 | 43 | 949 | 59 | 964 | 68 | 901 | 75 |
| Ratio 4 | 3625 | 38 | 903 | 22 | 908 | 35 | 931 | 41 | 883 | 53 |
| Ratio 5 | 3744 | 62 | 930 | 44 | 949 | 61 | 964 | 70 | 901 | 76 |
| Ratio 6 | 3762 | 93 | 940 | 88 | 950 | 93 | 967 | 95 | 905 | 94 |
| Ratio 7 | 3753 | 5 | 938 | 2 | 948 | 4 | 965 | 6 | 902 | 9 |

<표 7>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 영향요인분석

| | Ratio 1 | | Ratio 2 | | Ratio 3 | | Ratio 4 | | Ratio 5 | | Ratio 6 | | Ratio 7 | |
|-------------------|-------------|----------|---------|------------|---------|------------|---------|------------|---------|------------|----------|---------|-----------|---------|
| | B | Exp (B) | B | Exp (B) | B | Exp (B) | B | Exp (B) | B | Exp (B) | B | Exp (B) | B | Exp (B) |
| 사회인구학적 변수 | | | | | | | | | | | | | | |
| 가구주 연령 | -.018** | .982 | -0.004 | .970 | 1.002 | .988 | -0.003 | .988 | -0.001 | .996 | -0.002 | .988 | -0.001 | .976 |
| 자녀수 | -.440*** | .644 | -.109 | .981 | -0.005 | .781 | -0.057 | .781 | -0.067 | .745 | -.205* | .815 | -0.012 | 1.028 |
| 가구주 교육수준 (대졸=1) | -.115 | .882 | -0.028 | 1.241 | 0.052 | 1.109 | 0.024 | 1.109 | 0.060 | 1.299 | -0.012 | .988 | -0.001 | 1.153 |
| 가구주 직업 (전문직=1) | -.076 | .927 | -0.019 | .918 | -0.021 | .711 | -0.079 | .711 | -0.096 | .657 | .323 | 1.382 | 0.019 | .774 |
| 거주지(서울=1) | -.303 | .738 | -0.075 | .970 | -0.007 | .865 | -0.034 | .865 | 0.014 | 1.064 | -0.014 | .986 | -0.001 | 1.350 |
| 재무 관련 변수 | | | | | | | | | | | | | | |
| 소득계층 | | | | | | | | | | | | | | |
| 소득2분위 | .928*** | 2.530 | 0.230 | 1.325 | 0.068 | 1.565 | 0.104 | 1.565 | 0.086 | 1.459 | .510* | 1.665 | 0.031 | 1.715 |
| 소득3분위 | 1.844*** | 6.323 | 0.457 | 1.764 | 0.136 | 1.943 | 0.154 | 1.943 | 0.183 | 2.225 | 1.061*** | 2.891 | 0.064 | 2.115 |
| 소득4분위 | 2.947*** | 19.052 | 0.730 | 2.011 | 0.167 | 3.300 | 0.277 | 3.300 | 0.261 | 3.133 | .727** | 2.069 | 0.044 | 3.055 |
| 순자산보유여부 (순자산>0=1) | -.333 | .717 | -0.083 | 1.846 | 0.147 | 1.540 | 0.100 | 1.540 | 0.476 | 8.053 | 1.756*** | 5.792 | 0.106 | 583.818 |
| 축자가계여부 (유=1) | 11.990 | 161149.0 | 2.971 | 1.364 | 0.075 | 1.549 | 0.102 | 1.549 | 0.120 | 1.690 | .507** | 1.661 | 0.031 | .957 |
| 기타변수 | | | | | | | | | | | | | | |
| 가계경제 주관적 평가 | -.010 | .990 | -0.002 | .882 | -0.030 | .874 | -0.031 | .874 | -0.031 | .875 | .146* | 1.157 | 0.009 | .863 |
| 우리나라 경제 주관적 평가 | .022 | 1.023 | 0.005 | .983 | -0.004 | 1.041 | 0.009 | 1.041 | 0.006 | 1.027 | -0.048 | .953 | -0.003 | .903 |
| 상수 | -9.203 | .000 | | 3.204 | .488 | .580 | | .580 | .261 | .038 | 1.039 | | .000 | |
| -2 Log Likelihood | 1350.110 | | | 3564.557 | | 3364.334 | | 1430.738 | | 1430.738 | | | 1290.196 | |
| Model Chi-Square | 1834.200*** | | | 258.928*** | | 412.635*** | | 150.108*** | | 150.108*** | | | 83.369*** | |
| Concordant rate | 92.2% | | | 66.8% | | 67.7% | | 71.3% | | 71.3% | | | 93.7% | |
| N ¹⁾ | 2921 | | | 2919 | | 2921 | | 2837 | | 2921 | | | 2921 | |

*p < .05, **p < .01, ***p < .001

1)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계는 각 분석에서 제외

이상인 가계가 Ratio3의 준거기준을 충족시킬 확률이 5.9%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소득2분위 가계는 준거집단인 소득1분위 가계에 비해 8.2%, 소득3분위 가계는 16.9%, 소득4분위 가계는 24.5%, 준거기준 충족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순자산을 보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Ratio3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27.3%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순자산 보유여부는 가계유동성 확보의 큰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흑자가계인 경우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8.2%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높았으며, 가계경제 주관적 평가 점수가 1단위 낮을수록 Ratio3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3.3%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가계의 단기 재무적 위험에 대처 능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Ratio4(금융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총 사례의 62.8%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Ratio4의 준거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연령, 자녀수, 소득계층, 순자산 보유여부, 흑자가계여부 그리고 가계경제 주관적 평가점수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 1살 증가는 장기유동성비율 Ratio4의 적정 준거기준 충족확률을 0.3% 낮추며, 자녀수 1명 증가는 5.7% 준거기준 충족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2분위 가계는 10.4%, 소득3분위 가계는 15.4%, 소득4분위 가계는 27.7%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가 순자산을 보유하거나 흑자가계일수록 Ratio4의 준거기준 충족확률을 10%, 10.2% 높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기타변수인 가계경제의 주관적 평가 점수가 1점 높을수록 준거기준 충족 확률은 3.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atio5(금융자산/총부채)의 준거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총 사례의 71.3%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Ratio5의 준거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소득계층, 순자산보유여부와 흑자가계여부 그리고 가계경제의 주관적 평가로 나타났다.

자녀수 1명 증가는 Ratio5의 적정 준거기준 충족확률을 각각 6.7% 낮추며, 가구주가 대졸 학력은 준거기준 충족확률을 6% 높이며, 가구주 직업유형이 전문직일 경우 9.6%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득2분위 가계는 8.6%, 소득3분위 가계는 18.3% 그리고 소득4분위 가계는 26.1% 소득1분위 가계에 비해 적정기준 충족확률을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순자산 보유와 가계의 흑자여부는 각각 Ratio5의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47.6%, 12.0%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순자산보유여부와 가계수지의

안정화는 부채상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계의 주관적평가점수가 1점 높을수록 3.1%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Ratio6(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충족 영향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총 사례의 92.3%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Ratio6의 준거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 소득계층, 순자산보유여부와 흑자가계여부 그리고 가계경제의 주관적평가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1명 더 많을수록 1.2%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 가계에 비해, 소득2분위 가계는 3.1%, 소득3분위 가계는 6.4%, 소득4분위 가계는 4.4% Ratio6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계의 순자산 보유여부와 가계의 흑자여부는 Ratio6의 준거기준 충족 확률을 각각 10.6%, 3.1%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경제의 주관적 평가점수 1점 높은 가계가 준거기준을 충족시킬 확률이 0.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의 분석결과,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총 사례의 93.7%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Ratio7의 준거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연령과 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연령이 1살 적을수록 Ratio7의 준거기준을 충족시킬 확률이 0.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 연령이 적은 가계형성기가계의 경우 아직 투자자산보유액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소득3, 4분위 가계는 각각 소득1분위 가계에 비해 Ratio7 준거기준 충족확률이 2.4%,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산 비율의 준거기준 충족확률 가계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낮은 것을 볼 때 우리나라 가계는 여전히 투자를 가계자산증대의 위험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래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서는 각 소득계층에 적절한 자산축적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개인 및 가계의 재무설계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계 재무구조분석, 즉 지금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은 얼마이며 지출은 그에 맞게 하고 있는지, 가계의 자산은 어느 정도 인지, 가족원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한지, 나의 재무상태 또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건전한지 등을 알아야 한다. 이

리한 분석이 바로 가계 재무구조분석이다.

본 연구는 가계소득계층 및 가계특성에 따른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소득계층별 재무구조는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4분위 가계가 소득·지출 그리고 자산·부채변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4분위 가계 즉, 고소득집단의 가계재무구조와 상태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집단의 가계부채가 기타 다른 소득계층 가계와 비교해 볼 때, 소득수준에 비해 부채부담이 높은 수준이나 순자산보유액의 정도가 기타 다른 가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구조형태를 볼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 가계인 소득1분위 가계의 가계재무구조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순자산보유액 정도가 낮아 가계의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어려우며 미래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순자산 보유뿐만 아니라, 가계수지측면 즉, 가계 흑자율에서도 매우 큰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득과 지출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부채부담이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때, 저소득층 가계는 부채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무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상이한 재무구조와 상태는 가계의 재무관리 및 미래의 자산관리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둘째, 가계소득계층별 가계재무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 Ratio2(총저축액/총소득), Ratio4(금융자산/총자산) 그리고 Ratio5(금융자산/총부채)가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비성향 총 소득이 가장 높은 가계인 소득4분위 가계가 가장 낮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 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성향의 차이는 소비지출액의 증가보다 소득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낮게 나온 것이다.

가계의 저축률은 총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 가계는 소득 중 저축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저축은 가계소득 중 일부를 미래소득 혹은 자산축적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화폐이며, 현재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며 이로써 나중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나중에 고소비를 하고자 하면 현재에는 낮은 수준의 소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계는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아

현재에 낮은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고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가계는 우선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유동성비율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유자산의 형태가 실물자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며,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의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소득4분위 가계의 보유자산의 형태는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부채상환능력은 소득1분위 가계가 가장 낮으며, 소득4분위 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가 자산과 부채액 모두 높으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 높다면 가계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득계층은 모든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여부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가계의 재무구조 및 가계재무구조의 안정화에 가계의 총소득이 좌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가계는 현재가계가 속해있는 소득계층을 파악하고 상위소득계층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소비지출은 그 지출 자체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단순한 파악보다는 소득계층별 가계수지균형을 파악하여야 한다. 소득계층에 따라 구분한 재무구조 및 재무비율의 차이를 반영하는 재무관리교육, 재무관련 정부정책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현재 및 미래의 예상소득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재무관리교육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가계의 재무적 안전감과 미래 지향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수준의 자산보유형태가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자산보유형태에 대한 분석 역시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야 하고, 그 응용에 있어서도 차별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고소득계층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적정비율을 확보하고, 부채를 감소시키며,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즉, 가계특성 및 소득수준에 맞는 자산보유액을 인지하고, 가족구성원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어진 자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자산증진을 할 수 있는 국가정책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도 생애주기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축적방법 및 상품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겠다. 또한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및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계층별로 저축의 규모가 다르며 이는 가계의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축적방법이 저축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가계가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늘어나 저축이 많아지게 되며, 노년기에는 그 동안 저축한 것을 소비하며 산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계가 저축을 하고 자산을 늘리는 이유는 전생애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효용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계는 적정수준의 저축과 부채 가지고 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자한다. 따라서 가계는 소득수준별로 적정수준의 저축과 부채범위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가계 특성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무구조 또는 재무비율분석에 그치지 않고, 여러 재무비율을 소득·지출비율, 유동성비율, 자산·부채비율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같은 준거기준을 충족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제 혹은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가계재무구조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금융시장환경이 반영될 수 있는 자료 구축 및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육구 및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에 이용된 재무비율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수준, 자녀교육을 위한 자산축적을 충분히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동시에 각 가계의 특성 특히 소득수준에 안정화라는 적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준거기준을 세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무지수를 산정하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가계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가계재무구조, 가계재무비율, 가계재무준거기준

참 고 문 헌

김연정(1998).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98학술발표

회 자료집, pp. 37-63.

김철중(2000). 「재무분석」, 한국금융연수원.

김혜련·최현자(1999).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0호 pp. 91-106.

문숙재·정순희·여윤경(2002). 가계 순자산 규모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제13권 3호, pp. 169-188.

배미경(199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함수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9권 14호 pp. 83-101.

_____(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재정상태 비교분석 :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9호 pp. 49-61.

보건복지부(2001). 「2002년도 최저생계비」

성영애(1996). 도시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추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6호 p.183-194.

_____(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 pp. 39-58.

성영애·양세정·이희숙·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 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15권 3호, p.155-171.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12호, pp. 1-14.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제4권 2호 pp. 29-50.

안승철·김년희(2001).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영남대학교 지역발전 연구. pp. 73-97.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9호 pp. 143-160.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접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1호 pp. 151-169.

최운지·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2호 pp. 83-96.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제34권 3호 pp. 59-73.

_____(2001).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 부담의 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5호 pp. 279-291.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4권 1호 pp. 99-120.

채은석·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11호 pp. 1-12.
- Crystal S. & Shea D. (1990).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3) pp. 227-247.
- DeVaney(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pp. 31-46.
- Fan, X. J. , Chang, Y. R. & Hanna, S. (1992). Optimal Credit use with Uncertain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1). pp. 125-133.
- _____ (1997). Emergency Fund Levels : is Household Behavior Rational?,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 Garman. E. T. & For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4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Griffith(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 A modest beginning. In G. Langreher (Ed.) *The Proceeding of AFCPE*. pp. 123-131.
- Hira, T. K. (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6,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pp. 165-175.
- Langrehr, V. B. & Langrehr, F. W. (1989). Measuring the Ability to Repay : The Residual Income Ratio.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2). pp. 393-406.
- Lytton. R. H. , Garman. E. T. & Porter. N. M.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pp. 3-24.
- Prather. C. G. (1990). The ratio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C & P* 1, pp. 53-70.
- Waddell, F. E. (1999). 고객관리를 위한 재무상담, 김경자 외 편역, 시그마프레스.

(2005. 05. 20 접수; 2005. 08. 15 채택)